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유지해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공동의원장을 수락해주신 이원욱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포럼이 열리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가 국회 답변 자리가 아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원자력계에도 큰 일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과 같은 이야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력업계의 역할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것 입니다. 그것도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2050년까지는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해야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최상위 정책이 에너지전환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전문가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수없이 밝혔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정책적인, 환경적인,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이래 계속 고민하여 찾은 방안 중 하나가 SMR이었습니다.

SMART 원자로도 지원하고, 혁신형 SMR을 통해서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겪고 있는 모든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 글로벌 트렌드, 산업이 나아갈 교집합이고 국내 정책하고도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1년여의 논의를 거쳐서 작년 9월에 최상위요건, 개념설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12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총리님께서 발표하면서 SMR을 특별히 언급해주셨습니다.

금년 1월에 자체예산 500억을 투입해서, 과제로 SMR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의 국책과제입니다. 금년도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혁신형 SMR이 진정한 차세대 수출노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도움, 특히 의원님들의 도움, 학계,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의 모든 힘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IIF**